

청소년의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lescents' Callousness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Through Moral Disengagement

한세영¹ 최혜선²

Sae-Young Han¹ Hyesun Choi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callousness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through moral disengagement.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15 freshmen and sophomore high school student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Results: First, adolescents' callousness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active aggr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oral disengagement. Second, adolescents' callous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roactive aggress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oral disengagement. That is, adolescents' high level of callousness not only predicts a higher level of proactive aggression directly, but also influences moral disengagement which may result in a high level of proactive aggression. In addition, the gender difference in this model was confirmed.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dolescents' callousness could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aggression through moral disengagement by the types of aggression and gender.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emotional and cognitive process of adolescent aggress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aggression and gender.

key words callousness, moral disengagement, reactive aggression, proactive aggression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생
(e-mail : hyesunchoi20@gmail.com)

I. 서론

공격성은 신체적 상처나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발달적 이슈이며, 청소년기 공격성은 반사회적 행동과 낮은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정적 결과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다(Coie & Dodge, 1998). 특히, 최근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성향은 점차 충동적이며 심각해지고 있다.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SNS)상의 온라인 공격, 폭행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공격적 행동 수준이 심각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유근영, 2018).

공격성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공격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으나, 최근 연구들은 공격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밝혀왔다(오인수, 2014; 이홍, 김은정, 2012; 최은실, 2018; Blais, Solodukhin, & Forth, 2014; Dodge & Coie, 1987; Fite, Stoppelbein, & Greening, 2009; Rathert, Fite, & Gaertner, 2011). 공격성은 다양한 기준에서 그 하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형태적 차원에서 구분하거나 기능적 차원에서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이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후속 연구들에서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인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리라, 1998; 임지영, 2012; 전선영, 2000; Dodge & Coie, 1987; Nouvion, Cherek, Lane, Tcheremissine, & Lieving, 2007). 주도적 공격성은 특정한 이익이나 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유발되거나 강화되는 목표지향적 특성을 지닌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도발에 대한 분노나 공격받는 것에 대한 방어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타인의 행동을 무시나 부당함 등의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보이는 방어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박정은, 2002; 윤리라, 1998; 이홍, 김은정, 2012; 전선영, 2000; 한영경, 2008; Dodge & Coie, 1987; Vitaro, Bredgen, & Tremblay, 2002).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오류를 보이지만,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리라, 1998, Crick & Dodge, 1996). 또한, 반응적 공격성은 정서조절이나 행동조절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이홍, 김은정, 2012; 최은실, 2018; Xu & Zhang, 2008; Seah & Ang, 2008), 주도적 공격성은 죄책감이나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을 수단시 하며(Xu & Zhang, 2008)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외현화 문제 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te et al., 2009; Rathert et al., 2011; Vitaro et al., 2002). 이와 같이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지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서로 다른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홍, 김은정, 2012) 개인의 인지적 매커니즘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각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반응적 공격성과 상대방에게 선제적 공격을 가하는 주도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인지적 매커니즘을 통해 각각의 공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공격성의 증가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이래 청소년 공격성의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인의 내적 특성 중 냉담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냉담-무정서는 죄책감과 공감의 부족, 감정표현 부족, 기만(deceitfulness), 타인 조정, 처벌에 대한 약한 민감성,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후회 부족 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Frick, Stickler, Dandreaux, Farrell, & Kimonis, 2005; Lynam et al., 2009; Masi, Muratori, Manfredi, Pisano, & Milone, 2015; Paciello, Masi, Clemente, Milone, & Muratori, 2017; 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에 걸쳐 특히 안정적이며(Frick et al., 2005; Lynam et al., 2009; Masi et al., 2015), 심각한 형태의 행동 문제나 폭력과 상습범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x, Jennings, & Farrington, 2015; Frick, Ray, Thornton, & Kahn, 2014; Paciello et al., 2017).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 중 특히 냉담성은 반사회성 성격특성과 비행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은정, 2011).

냉담한 성향의 개인은 죄책감과 공감, 상호호혜성이 부족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수준이 매우 낮다. 냉담성을 지닌 개인은 두려움 없는(fearlessness) 기질과 위험을 추구하는 기질을 동시에 보이기도 하여(Frick & Nigg, 2012; Frick & Ray, 2015),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격을 감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이 없어 폭력이 보다 잔인해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냉담한 특질은 공격성과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송보경, 이주영, 2014; Essau, Sasagawa, & Frick, 2006; Lau & Marsee, 2013)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냉담한 성향은 사이코패스나 비행 청소년의 특징으로 보고되기도 하나(이지후, 2015),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의 공격성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상당수 이어지고 있다(Blais et al., 2014).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냉담성을 공감, 죄책감, 후회 등이 결여된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냉담성과 공격성 전체의 상관은 꾸준히 보고되어 왔으며, 특히 주도적인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냉담한 특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각적인 보상, 영향, 우위성과 같은 공격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처벌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Dvorak-Bertsch, Curtin, Rubinstein, & Newman, 2009; Frick et al., 2003, 2014; O'Brien & Frick, 1996; Rosan & Costea-Barlutiu, 2013). 또한, 냉담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다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보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h, Frick, & Clements, 2005; Lawing, Frick, & Cruise, 2010). 국내에서는 두 번인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많지 않지만 소수의 연구가 두 번인의 상관을 밝힌 바 있다(김수민, 2019). 냉담성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송보경, 이주영, 2014)과 관련이 높았고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자의 냉담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은혜, 김효은, 2017). 1년의 간격을 두고 여자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와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영향을 살펴본 이주영(2018)의 연구에서는, T1의 품행문제를 통제하였을 때 T1의 냉담-무정서 특질은 1년 후인 T2의 품행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T2의 부모 모니터링을 매개로 T2의 품행문제를 간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주영(2018)은 1차 시기의 품행문제를 통제했기 때문에 1년 후인 2차 시기의 품행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라기보다는 연구대상 여학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냉담성은 정서발달의 한 측면인데,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Imbir(2016)는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 4가지 모델을 제시했고, 그 중 한 모델을 통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정서가 아닌 자동적으로 발생한 정서(automatic emotion)가 체

계적인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자동 발생된 정서가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방해하고 파괴하며, 주의의 초점을 좁혀 정서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다(Blanchette & Richards, 2010; Damasio, 2010; Imbir, 2016; Melton, 1995; Tooby & Cosmides, 1990). 즉, 기질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정정서의 성향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발생한 정서는 인지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과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여 타고난 자동발생정서에 해당되는 냉담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과정인 도덕적 왜곡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내면으로부터 자동 발생된 정서가 인지적 왜곡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 모델을 반영하여, 분노와 같이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서가 아닌, 개인 내적 특성으로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냉담성과 같은 정서적 특질이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죄책감이 결여된 정서인 냉담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리화하는 인지적 왜곡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냉담성이 공격적 행동에 미칠 영향을 돕게 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냉담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냉담성이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위해 높은 냉담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적 인지적 과정을 탐색해 왔다(Muratori et al., 2017). 도덕적 이탈은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인지적인 매커니즘으로(Paciello et al., 2017), 도덕적 기준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Bandura, Barbaranelli, Capara, & Pastorelli, 1996). 국외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냉담 특질과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파괴적 행동장애가 있는 이탈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Muratori et al., 2017), 14세에 측정된 냉담 특질은 일 년 후 높은 도덕적 이탈을 예측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담한 성향은 공감의 결여를 큰 특징으로 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결여가 개인의 도덕적 기준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선행연구(신서란, 2014; Paciello, Fida, Cerniglia, Tramontano, & Cole, 2013)도 냉담성의 도덕적 이탈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냉담성을 가진 청소년은 도덕적 기준을 작동시키는 데 오류를 범하며 타인에게 유해한 행동 또는 도덕적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후에 결과를 인식 또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작동하게 된 도덕적 이탈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허용과 정당화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즉, 도덕적 이탈은 비도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동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이탈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어 그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유근영, 2018; Kokkinos, Voulgaridou, Mandrali, & Parousidou, 2016). 도덕적 이탈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Gini, Pazzoli, & Hymel, 2014), 도덕적 이탈은 여러 유형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들에 비하여 청소년들에게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이탈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욱 심각한 공격적인 행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ini et al., 2014). 국내 연구에서도 도덕적 이탈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이나 규칙위반 행동, 비행이 높았으며(김지미, 김정민, 2013; 윤노을, 2018),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이나 괴롭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정, 육은희, 2013).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몇몇 연구에서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 특질과 도덕적 이탈을 탐색한 바 있다. Paciello 등(2017)은 파괴적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는데, 냉담 특질은 기질적 차원에 근거한 정서적 과정으로, 도덕적 이탈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표현하였으며 모두 행동의 심각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uratori et al., 2017)에서는, 14세에 측정한 냉담 특질은 일 년 후 높은 도덕적 이탈을 예측하였고, 도덕적 이탈은 일 년 후 공격성과 규칙위반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냉담한 성격특성을 가진 청소년은 도덕적 규준을 작동시키는 데 오류를 범하며 도덕적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후에 결과를 인식 또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즉, 냉담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지적 왜곡과정인 도덕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 특질과 도덕적 이탈,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 또한 냉담성의 주된 특징으로 언급되는 공감의 결여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한다고 설명한 연구들(Bao, Zhang, Lai, Sun, & Wang, 2015; Chowdhury & Fernando, 2014; Fontaine, Fida, Paciello, Tisak, & Caprara, 2014; Hyde, Shaw, & Moilanen, 2010; Visconti, Ladd, & Kochenderfer-Ladd, 2015; Wang, Lei, Yang, Gao, & Zhao, 2017)도 보고되고 있어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 및 공격성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 공격성과 관련하여 성차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자의 공격성 수준이 여자보다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학생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주로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가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자가 높다(Archer, 2001; Little, Jones, Henriche, & Hawley, 2003; 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한영경, 2008).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다(서미정, 2011). 선제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선제적 공격 수준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지만 반응적 공격성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신현숙, 김선미, 2014; Fung, Raine, & Gao, 2009; Little et al., 2003). 한편, 여자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정도나 심각성은 남자 청소년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송보경, 이주영, 2014). 따라서 공격성의 세부내용과 성별에 따라 공격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홍명숙, 어주경, 2013). 또한, 청소년의 냉담성에서도 성차가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냉담성과 문제행동, 비행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냉담성이 내재화 문

제와 미비한 상관을 보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 냉담한 특질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을 제시하였다. 송보경과 이주영(2014)의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냉담성이 높았으나, 냉담성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승은과 이승연(2011) 연구에서는 냉담한 특질이 높을수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또래 괴롭힘의 직접적인 가해를 많이 보인 반면, 간접적인 가해는 여학생만 관련이 있어 남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죄책감이 결여되고 냉담한 기질이 문제행동, 비행 등 부정적인 행동과 더 많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냉담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성에 따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의 측면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적 요인 중 냉담성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러한 냉담성과 같은 정서적 특성이 청소년의 내면에서 어떠한 인지적 기제를 작동시켜 공격성에 이르게 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인지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임지영, 2012). 따라서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다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냉담성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함께 검증하여 성별을 구분한 차별화된 중재가 필요한지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냉담성, 도덕적 이탈,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냉담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가? 이러한 영향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냉담성과 주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가? 이러한 영향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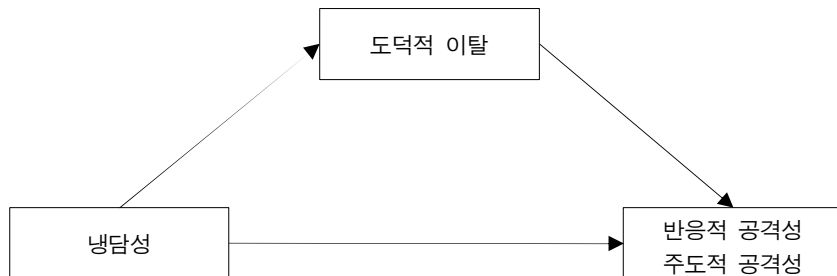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학생 315명이다. 연구대상의 학년과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127명(40.3%), 2학년 188명(59.7%)이며, 남학생 155명(49.2%), 여학생 160명(50.8%)이었다.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63명(20.0%), 수도권 112명(35.6%), 강원권 8명(2.5%), 충청권 25명(7.9%), 전라권 22명(7.0%), 경상권 79명(25.1%), 제주권 6명(1.9%)이었다.

2. 연구도구

1) 냉담성

냉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Frick(2004)이 개발하고 권은정, 손애리 그리고 황순택(201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정서적 결핍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의 하위척도인 냉담성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냉담성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기분이 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1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2)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dura 등(1996)의 도덕적 이탈 척도(MMDS: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를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4문항), 완곡한 명명(2문항), 유리한 비교(4문항), 책임 전가(4문항), 책임 분산(4문항), 결과 왜곡(4문항), 비인간화(4문항), 비난의 귀인(3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하는 것은 괜찮다’,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떠미는 것은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도덕적 이탈 문항 전체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BDH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에 기초하여 노안녕(1983)이 번안하고 김정임(2003)이 사용한 척도의 하위요인인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을 사용하였고, 주도적 공격성은 동일 척도의 하위요인인 기질

적 자발적 공격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은 6문항이며, 기질적 자발적 공격성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은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기질적 자발적 공격성은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의 문항 중 ‘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도 좀처럼 맞아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 1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 문항의 Cronbach's α 는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은 .74, 기질적 자발적 공격성은 .85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온라인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17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와 유의성 확인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χ^2 , NFI, TLI, CFI, GFI, RMSEA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아래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미만으로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냉담성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4, p < .01$)을 보였다. 냉담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응적 공격성($r = .16, p < .01$)과 주도적 공격성($r = .37, p < .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냉담할수록 도덕적 이탈을 많이 하고, 냉담할수록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이탈은 반응적 공격성($r = .39, p < .01$)과 주도적 공격성($r = .47, p < .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도덕적 이탈을 많이 할수록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r = .50, p < .01$)을 보여, 반응적 공격성을 많이 할수록 주도적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 = 315)

변인	1	2	3	4
1. 냉담성	-			
2. 도덕적 이탈	.34**	-		
3. 반응적 공격성	.16**	.39**	-	
4. 주도적 공격성	.37**	.47**	.50**	-
평균	1.93	2.21	2.28	1.70
표준편차	.46	.33	.62	.57
왜도	.84	.05	.21	1.01
첨도	1.13	.12	-.18	.78

** $p < .01$.

2.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하여 도덕적 이탈의 문항들을 부분적으로 합산하여 측정변수로 설정하는 항목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완곡한 명명이나 비난의 귀인 같은 특정 요인들은 국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 연구자들이 분석에서 해당 하위요인을 제외하거나(손은혜, 한세영, 2019; 윤노을, 2018),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요인을 새로 구성하기도 하고(노승현, 조아미, 2011), 문항묶음 방법을 사용하여(유정임, 2019; 이호석, 2016)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유정임, 2019; 이호석, 2016)을 참고하여 도덕적 이탈 척도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ittle 등(2002)의 절차에 따라 29개의 문항들을 3개의 항목에 순서대로 할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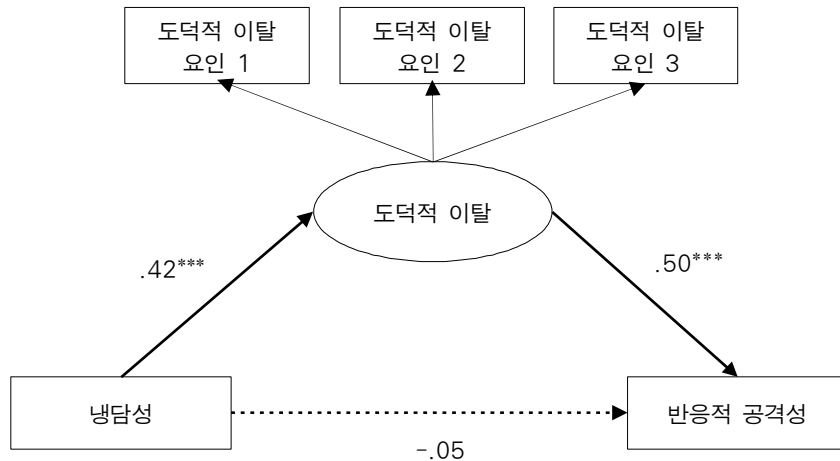
1)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냉담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냉담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NFI, TLI, CFI, GFI는 .90 이상, RMSEA는 .10 이하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NFI와 TLI가 각각 .89, .76으로 .90 미만이고 RMSEA가 .15로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없다(표 2 참고).

표 2. 모형의 적합도(반응적 공격성) (N = 315)

χ^2	df	NFI	TLI	CFI	GFI	RMSEA
31.41***	4	.89	.76	.90	.96	.15

*** $p < .001$.



주.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점선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01$.

그림 2.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2)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반응적 공격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냉담성과 주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61(df = 4, p < .001)$, NFI = .99, TLI = 1.00, CFI = 1.00, GFI = .99, RMSEA = .02로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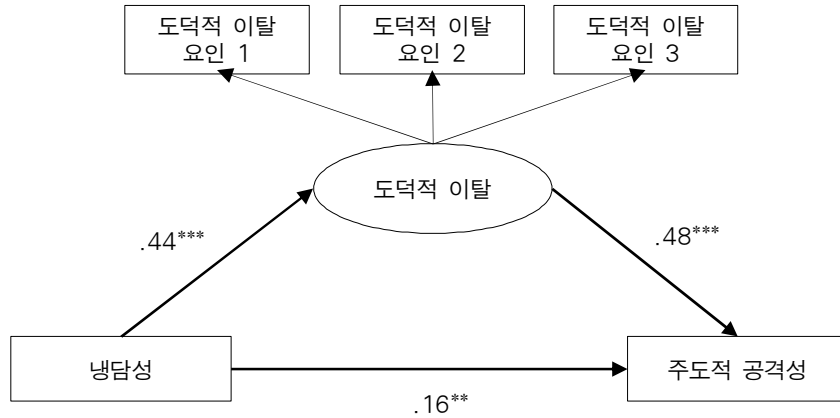
표 3. 모형의 적합도(주도적 공격성)

(N = 315)

χ^2	df	NFI	TLI	CFI	GFI	RMSEA
4.61***	4	.99	1.00	1.00	.99	.02

*** $p < .00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냉담성은 도덕적 이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44, p < .001$), 도덕적 이탈이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8, p < .001$). 또한, 냉담성은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 p < .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표 5 참고),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21, p < .01$). 즉, 냉담한 성향일수록 주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며, 냉담할수록 도덕적 이탈을 더 많이 하여 주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냉담성은 주도적 공격성을 19%,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은 함께 주도적 공격성을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 $p < .01$, *** $p < .001$.

그림 3.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표 4. 경로계수 (N = 315)

	경로	B	β	SE	C. R.
냉담성	→ 도덕적 이탈	.24	.44	.04	6.79***
도덕적 이탈	→ 주도적 공격성	1.07	.48	.17	6.42***
냉담성	→ 주도적 공격성	.19	.16	.07	2.70**

** $p < .01$, *** $p < .001$.

표 5. 효과분석 (N = 315)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냉담성	→ 도덕적 이탈	.44**	-	.44**	.19
도덕적 이탈	→ 주도적 공격성	.48**	-	.48**	.32
냉담성	→ 주도적 공격성	.16**	.21**	.37**	.32

** $p < .01$.

3)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 다집단 분석

청소년의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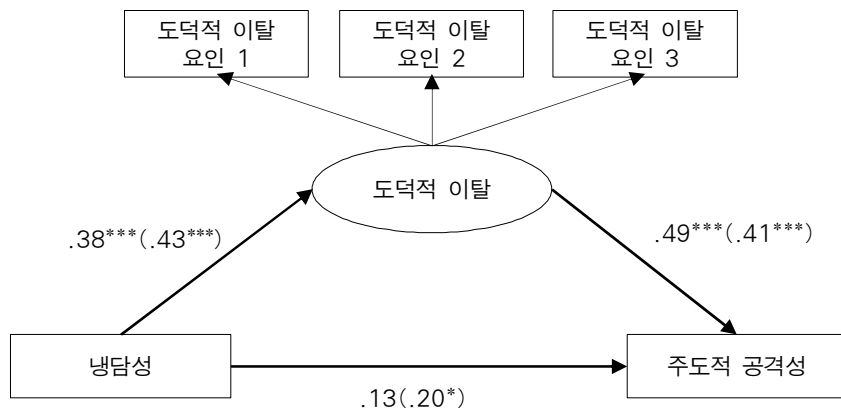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세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두 집단 간 계수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모형 A), 두 집단의 측정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 B), 두 집단의 측정계수와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구조제약모형(모형 C)이 포함된다. 먼저, 비제약 모형(모형 A)과 측정제약모형(모형 B) 간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표 6 참고),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chi^2 = 6.23$, $\Delta df = 2$, $p < .05$). 즉,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각각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남학생($\chi^2 = 6.07$ [$df = 4$, $p > .05$], NFI = .96, TLI = .96, GFI = .99, CFI = .98, RMSEA

= .06)과 여학생($\chi^2 = 3.28$ [$df = 4, p > .05$], NFI = .98, TLI = 1.00, GFI = .99, CFI = 1.00, RMSEA = .00) 모두 매우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표 6. 동일성 검증 (N = 315)

	χ^2	df	NFI	TLI	CFI	RMSEA
기저모형(A)	9.35	8	.97	.99	.99	.02
측정동일성 모형(B)	15.58	10	.95	.96	.98	.04
구조동일성 모형(C)	18.72	13	.94	.97	.98	.04
B-A	$\Delta \chi^2 = 6.23, \Delta df = 2, p < .05$					
C-B	$\Delta \chi^2 = 3.14, \Delta df = 3, p > .05$					

그 결과(그림 4, 표 7),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38, \beta = .43, p < .001$), 도덕적 이탈은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49, \beta = .41, p < .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표 8 참고),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학생($\beta = .31, p < .01$)과 여학생($\beta = .38, p < .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냉담한 성향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더 많이 하고, 도덕적 이탈을 많이 하면 주도적 공격성을 더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beta = .20, p < .05$), 남학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3, p > .05$).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학생은 도덕적 이탈이 완전매개효과를, 여학생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주도적 공격성을 높이지만, 여학생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냉담성 자체가 주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이다.



주 1.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함

2. 남학생(여학생)

* $p < .05$, *** $p < .001$.

그림 4. 성에 따른 차이

표 7. 성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SE	C.R.	B	β	SE	C.R.
냉담성 → 도덕적 이탈	.22	.38	.05	4.13***	.22	.43	.05	4.48***
도덕적 이탈 → 주도적 공격성	1.05	.49	.23	4.50***	.98	.41	.24	4.08***
냉담성 → 주도적 공격성	.17	.13	.10	1.64	.25	.20	.10	2.52*

* $p < .05$, *** $p < .001$.

표 8. 성에 따른 효과분석

경로	남학생				여학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냉담성 → 도덕적 이탈	.38**	-	.38**	.18	.43**	-	.43**	.14
도덕적 이탈 → 주도적 공격성	.49**	-	.49**	.28	.41**	-	.41**	.30
냉담성 → 주도적 공격성	.13	.18**	.31**		.20*	.18**	.38**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예측하고(Muratori et al., 2017; Paciello et al., 2013), 도덕적 이탈 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적인 행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유근영, 2018; 윤노을, 2018; Gini et al., 2014; Kokkinos et al.,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자동발생한 정서가 추론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왜곡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Imbir(2016)의 정서-인지 상호작용의 모델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도덕적 이탈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냉담성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한 냉담성 그 자체로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냉담성 특질을 보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나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고(이주영, 2018; 하은혜, 김효은, 2017), 더욱 주도적이고 도구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들(Dvorak-Bertsch et al., 2009; Frick et al., 2003; Lawing et al., 2010; Rosan & Costea-Barluti, 201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주도적 공격성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냉담한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인지 왜곡과정인 도덕적 이탈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냉담성 자체가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지적 편향이 강한 반

응적 공격성과 달리,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으로 선제적 공격을 스스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거치지 않고서도 냉담성과 같은 정서적 특질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없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을 높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도덕적 이탈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냉담성 자체도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문제행동(Essau et al., 2006)이나 비행(송보경, 이주영, 2014)과 관련이 높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Fanti, Frick, & Georgiou, 2008; Kimonis et al., 2008)은 대체적으로 냉담성의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으나 냉담한 특질과 범죄, 비행 등의 관계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 근거해 보면, 냉담한 특질은 남학생에게 더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여학생이 냉담한 특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남학생보다 범죄나 비행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Declercq, Carter, & Neumann, 2015). 다시 말해, 여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죄책감이 부족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도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적 특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여학생의 주도적 공격성이 냉담성으로부터 더 취약한 것은 남성의 냉담성은 관계내의 조정이나 통제와 같은 공격성 이외의 형태와 상관이 있는 반면(Byrd, Kahn, & Pardini, 2013), 여성의 냉담성은 주도적 공격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다(White, Gordon, & Guerra, 2015)는 국외연구들의 보고에 비추어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남학생의 주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내적과정에서 냉담성이 발현될 경우, 상대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이 개입하게 되는 측면이 크며, 이로 인해 상대의 심리나 관계, 행동을 파악하고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인지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주도적 공격성은 일명 “cold-blooded aggression”으로(White et al., 2015) 인지적 과정의 개입이 없이 정서적인 기저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가 발견한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냉담성이라는 정서적 특질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왜곡을 거쳐 주도적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개인내적인 정서적 특질과 인지적 과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청소년의 냉담한 특질은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인지적 매커니즘인 도덕적 이탈 기제를 작동시켜 죄책감을 덜고 주도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간접적 경로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훈련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냉담성과 관련된 정서적 측면의 개입과 함께 도덕적 정당화의 인지적 전략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인지적인 측면의 개입이 함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이러한 정서-인지적 과정이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상황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공격성은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을 통한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주도적 공격성은

인지적 왜곡의 매커니즘을 거칠 뿐 아니라 냉담성이라는 정서적 특질의 직접적인 작용이 보다 강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공격성은 기질적 냉담성과 인지적 왜곡인 도덕적 이탈이 결합한 매커니즘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 기질적으로 타고난 냉담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 하에 일어난 인지적 과정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청소년의 냉담한 특질이 그 자체로서 공격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감행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주도적 공격성은 죄책감이나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Xu & Zhang, 2008),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여 주도적 공격성을 감행하는 개인의 평가와 감정이 함께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했던 선행연구(윤리라, 1998; Crick & Dodge, 1996)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조사되고 보고되어 온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의 특성과 이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 또 하나의 기초지식을 추가하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 보고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이 가지는 정서-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심도깊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발견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은 냉담한 특질을 가졌더라도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주도적 공격성이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냉담한 특질 자체로도 주도적 공격성을 보이며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 주도적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냉담성이 여학생의 문제행동과 더욱 관련이 높았던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여학생의 냉담성은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냉담성과 도덕적 이탈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다르며 성차에 따라 다른 것을 토대로, 공격성의 유형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제 3자가 청소년의 특성을 측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덕적 이탈을 항목목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덕적 이탈의 하위 요인 중 일부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가 낮아 일부 요인을 제외하거나(손은혜, 한세영, 2019; 윤노을, 2018), 요인분석(노승현, 조아미, 2011)이나 항목목록(이호석, 2016)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를 보완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냉담성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인지적 매커니즘인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확인하였고, 그러한 냉담성-도덕적 이탈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공격성의 유형과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냉담한 성향의 청소년이 도덕적 책무를 외면하고 죄책감을 면제받는 인지적 왜곡을 통해 주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과정을 밝히며,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다른 영

향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해, 공격성 유형과 성별에 따른 적절한 훈련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정서적인 차원과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상담 및 지원이 성에 따라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으며, 상담과 중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은정 (2011). 한국판 CU 특질 척도의 타당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집단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ICU)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6. doi:10.35151/kyci.2010.18.2.001
- 김수민 (2019). 냉담-무정서 특질집단의 고통정서에 대한 주의지향이 정서적 반응성, 공감 및 선제적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임 (2003).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미, 김정민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3-29. doi:10.5723/KJCS.2013.34.6.13
- 노승현, 조아미 (2011). 대학생의 도덕적 이탈 및 자아정체감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8**, 33-55.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doi:10.5723/KJCS.2011.32.3.143
- 서미정, 김경연 (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손은혜, 한세영 (2019).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2), 131-142. doi:10.5723/kjcs.2019.40.2.131
- 송보경, 이주영 (2014).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에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633-658. doi:10.15842/kjcp.2014.33.3. 010010
- 신서란 (2014). 중학생의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김선미 (2014). 남녀 중학생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괴롭힘 관련 태도와 도덕적 이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1**(3), 307-331.
- 오승은, 이승연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3), 147-169. doi:10.15753/aje.2011.12.3.007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 연구**, **15**(5), 1871-1885. doi:10.15703/kjc.15.5.201410.1871
- 유근영 (2018). 청소년의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임 (2019).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노을 (201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리라 (1998).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 육은희 (2013). 폭력적 온라인 게임의 도덕적 이탈 단서: FPS 게임의 사살 정보와 집단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1), 219- 241.
- 이주영 (2018). 냉담-무정서 특질이 여자 청소년의 외현화 및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 모니터링의 단기 중단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8**(4), 393-411. doi:10.33703/cbtk.2018.18.4.393
- 이지후 (2015).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석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임지영 (2012). 공격성 위험집단 청소년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2), 1-29.
- 전선영 (2000).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와 행동특징.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18).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을 매개로. **발달지원연구**, **7**(2), 73-86.
- 하은혜, 김효은 (2017). 학교폭력 청소년의 부모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1), 67-88. doi:10.23931/kacp.2017.12.1.67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doi:10.15703/kjc.14.6.201312.3911

- Archer, J. (2001). A strategic approach to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0*(2), 267-271. doi:10.1111/1467-9507.00163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doi:10.1037/0022-3514.71.2.364
- Bao, Z., Zhang, W., Lai, X., Sun, W., & Wang, Y. (2015). Parental attachment and Chinese adolescents'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Adolescence, 44*, 37-47. doi:10.1016/j.adolescence.2015.06.002
- Blais, J., Solodukhin, E., & Forth, A. E. (2014). A meta-analysi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instrumental versus reactive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7), 797-821. doi:10.1177/0093854813519629
- Blanchette, I., & Richards, A. (2010). The influence of affect on higher level cognition: A review of research on interpretation, judgement, decision making and reasoning. *Cognition & Emotion, 24*(4), 561-595. doi:10.1080/02699930903132496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4), 343-349. doi:10.1037/h0046900
- Byrd, A. L., Kahn, R. E., & Pardini, D. A. (2013). A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 ma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1), 20-34. doi:10.1007/s10862-012-9315-4
- Chowdhury, R. M. M. I., & Fernando, M. (2014). The relationships of empathy, moral identity and cynicism with consumers' ethical beliefs: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4*(4), 677-694. doi:10.1007/s10551-013-1896-7
- Coie, J. D., & Dodge, K. A. (199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Wiley.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doi:10.2307/1131875
- Damasio, A. (2010). *Self comes to mind: Constructing the conscious brain*. New York: Pantheon/Random House.
- Declercq, F., Carter, R., & Neumann, C. S. (2015). Assessing psychopathic traits and criminal behavior in a young adult female community sample using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0*(4), 928-935. doi:10.1111/1556-4029.12783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doi:10.1037/0022-3514.53.6.1146
- Dvorak-Bertsch, J. D., Curtin, J. J., Rubinstein, T. J., & Newman, J. P. (2009). Psychopathic traits moderate the interaction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ing. *Psychophysiology, 46*(5),

- 913-921. doi:10.1111/j.1469-8986.2009.00833.x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4), 454-469. doi:10.1177/1073191106287354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8).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4), 285-298. doi:10.1007/s10862-008-9111-3
- Fite, P. J., Stoppelbein, L., & Greening, L. (2009).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child psychiatric inpati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2), 199-205. doi:10.1080/15374410802698461
- Fontaine, R. G., Fida, R., Paciello, M., Tisak, M., & Caprara, G. A. (2014).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al course from peer rejection in adolescence to crime in early adulthood. *Psychology, Crime and Law, 20*(1), 1-19. doi:10.1080/1068316X.2012.719622
- Fox, B. H., Jennings, W. G., & Farrington, D. P. (2015). Bringing psychopathy into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274-289. doi:10.1016/j.jcrimjus.2015.06.003
- Frick, P. J. (2004).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New Orleans, LA: The University of New Orleans.
- Frick, P. J., Cornell, A. H., Bodin, S. D., Dane, H. E., Barry, C. T., & Loney, B. R.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sever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46-260. doi:10.1037/0012-1649.39.2.246
- Frick, P. J., & Nigg, J. T. (2012). Current issues in the diagnosi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8*, 77-107. doi:10.1146/annurev-clinpsy-032511-143150
- Frick, P. J., & Ray, J. V. (2015). Evaluat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as a personality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83*(6), 710-722. doi:10.1111/jopy.12114
- Frick, P. J., Ray, J. V., Thornton, L. C., & Kahn, R. E. (2014). Can callous-unemotional traits enhance the understan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rious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rehens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1), 1-57. doi:10.1037/a0033076
- Frick, P. J., Stickle, T. R., Dandreaux, D. M., Farrell, J. M., & Kimonis, E. R. (2005).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predicting the severity and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71-487. doi:10.1007/s10648-005-5728-9
- Fung, A. L., Raine, A., & Gao, Y. (2009).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RPQ).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5), 473-479. doi:10.1080/00223890903088420
- Gini, G., Pozzoli, T., & Hymel, S. (2014). Moral disengagement among children and youth: A meta-analytic review of links to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40*(1), 56-68.

- doi:10.1002/ab.21502
- Hyde, L. W., Shaw, D. S., & Moilanen, K. L. (2010). Developmental precursor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2), 197-209. doi:10.1007/s10802-009-9358-5
- Imbir, K. K. (2016). From heart to mind and back again. A duality of emotion overview on emotion-cognition interactions. *New Ideas in Psychology*, 43, 39-49. doi:10.1016/j.newideapsych.2016.04.001
- Kimonis, E. R., Frick, P. J., Skeem, J. L., Marsee, M. A., Cruise, K., & Munoz, L. C. et al. (2008). Assess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dolescent offenders: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1(3), 241-252. doi:10.1016/j.ijlp.2008.04.002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okkinos, C. M., Voulgaridou, I., Mandrali, M., & Parousidou, C. (2016). Interactive links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theory of mind, and moral disengagement among early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 53(3), 253-269. doi:10.1002/pits.21902
- Kruh, I. P., Frick, P. J., & Clements, C. B. (2005). Histor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to the violence patterns of juveniles tried as ad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1), 69-96. doi:10.1177/0093854804270629
- Lau, K. S. L., & Marsee, M. A. (2013). Exploring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in youth: Examination of associations with anti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3), 355-367. doi:10.1007/s10826-012-9586-0
- Lawing, K., Frick, P. J., & Cruise, K. R. (2010). Differences in offending patterns between adolescent sex offenders high or low in callous-unemotional traits.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298-305. doi:10.1037/a0018707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151-173. doi:10.1207/S15328007SEM0902_1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doi:10.1080/01650250244000128
- Lynam, D. R., Charnigo, R., Moffitt, T. E., Raine, A.,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2009). The stability of psychopathy across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133-1153. doi:10.1017/S0954579409990083
- Masi, G., Muratori, P., Manfredi, A., Pisano, S., & Milone, A. (2015). Child Behaviour Checklist emotional dysregulation profiles in youth with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s: Clinical

- correlates and treatment implications. *Psychiatry Research*, 225(1-2), 191-196. doi:10.1016/j.psychres.2014.11.019
- Melton, R. J. (1995). The role of positive affect in syllogism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8), 788-794. doi:10.1177/0146167295218001
- Muratori, P., Paciello, M., Buonanno, C., Milone, A., Ruglioni, L., & Lochman, J. E. et al.(2017). Moral disengagement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A longitudinal study of Italian adolescents with a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7(5), 514-524. doi:10.1002/cbm.2019
- Nouvion, S. O., Cherek, D. R., Lane, S. D., Tcheremissine, O. V., & Lieving, L. M. (2007). Human proactive aggression: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Aggressive Behavior*, 33(6) 552-562. doi:10.1002/ab.20220
- O'Brien, B. S., & Frick, P. J. (1996). Reward dominance: Associations with anxiety, conduct problems, and psychopathy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2), 223-240. doi:10.1007/BF01441486
- Paciello, M., Fida, R., Cerniglia, L., Tramontano, C., & Cole, E. (2013). High cost helping scenario: The role of empathy, prosocial reasoning and moral disengagement on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55(1), 3-7. doi:10.1016/j.paid.2012.11.004
- Paciello, M., Masi, G., Clemente, M. G., Milone, A., & Muratori, P. (2017). Moral disengagement and callous unemotional traits configurations in adolescent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A person-oriented approach. *Psychiatry Research*, 258, 591-593. doi:10.1016/j.psychres.2017.08.043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0(4), 479-491. doi:10.1207/S15374424JCCP3004_05
- Rathert, J., Fite, P. J., & Gaertner, A. E. (2011). Associations between effortfu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2(5), 609-621. doi:10.1007/s10578-011-0236-3
- Rosan, A. M., & Costea-Barluti, C. (2013). Associations between callous-unemotional traits, agg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detained adolescent males. *Journal of Cognitive and Behavioral Psychotherapies*, 13(2), 397-407.
- Seah, S. L., & Ang, R. P. (2008).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sian adolescents: Relations to narcissism, anxiety, schizotypal traits, and peer relations. *Aggressive Behavior*, 34(5), 553-562. doi:10.1002/ab.20269
- Tooby, J., & Cosmides, L. (1990). The past explains the present: Emotional adaptations and the structure of ancestral environment. *Ethology and Sociobiology*, 11(4-5), 375-424. doi:10.1016/0162-3095(90)90017-Z
- Viding, E., Simmonds, E., Petrides, K. V., & Frederickson, N. (2009). The contribution of callous-un-

- 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471-481. doi:10.1111/j.1469-7610.2008.02012.x
- Visconti, K. J., Ladd, G. W., & Kochenderfer-Ladd, B. (2015).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 goals and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61(1), 101-123. doi:10.13110/merrpalmquar1982.61.1.0101
- Vitaro, F., Bre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doi:10.1111/1469-7610.00040
- Wang, X., Lei, L., Yang, J., Gao, L., & Zhao, F. (2017). Moral disengage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among Chinese male juvenile delinqu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8(2), 316-326. doi:10.1007/s10578-016-0643-6
- White, B. A., Gordon, H., & Guerra, R. C. (2015).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empathy in proactive and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5, 185-189. doi:10.1016/j.paid.2014.11.031
- Xu, Y., & Zhang, Z. (2008). Distinguish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nes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39-552. doi:10.1007/s10802-007-9198-0

논문투고: 19.09.09
수정원고접수: 19.11.11
최종게재결정: 19.11.23